

일본, 야채가격 급등 추세

일본 농림수산성이 5월 29일 발표 한 6월의 도매가격 전망에 따르면, 배추, 감자, 양상추, 양파 등 소비량이 많은 야채 14품목 중 6월 전반에는 하우스 재배가 중심인 오이를 제외한 13개 품목, 6월 후반에는 배추, 감자, 양파 등 6개 품목의 도매가격이 평년 대비 20%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.

4월 상순의 일조부족, 하순 이후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생육 지연과 출하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.

- 주요 야채의 작황 및 가격전망은 붙임 자료 참고

붙 임 : 주요 야채의 작황 및 가격전망 1부.

<붙임>

주요 야채의 작황 및 가격 전망 ('15년 6월)

(도쿄중앙도매시장 주요산지 및 도매법인 설문조사 결과)

<전체>

품 목	현재 생육상황
근채류 (무, 당근)	- 4월 하순 이후의 가뭄에 따른 품질 저하
잎줄기채류 (배추, 양배추 등)	- 4월 하순 이후의 가뭄에 따른 품질 저하
과채류 (오이, 가지 등)	- 가지, 피망은 4월 상중순의 기록적인 일조부족에 의한 생육 지연 - 토마토는 4월 상중순의 기록적인 일조부족에 의한 수세 약화
토물류 (감자, 양파 등)	- 감자는 4월 상중순의 기록적인 일조부족에 의한 품질 저하 - 토란은 강우 등에 따른 역병 발생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4월 하순 이후 가뭄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 - 양파는 4월 상중순의 기록적인 일조부족 및 4월 하순 이후의 가뭄에 의한 품질 저하

<주요 품목별>

품목/주요산지 ()내는 전년 6월의 점유율	6월 가격전망 (평년 대비)		향후 생육 및 출하 전망
	전반	후반	
무 아오모리(54%) 치바(24%)	5월부터 고가격 추이	평년 수준 으로 회복	- 6월은 산지가 관동에서 동북으로 전환되는 시기 - 6월 전반은 관동의 출하가 끝나는 시기로, 4월 이후의 가뭄에 의한 품질저하로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아 가격은 지난달에 이어 평년보다 높음 - 6월 후반은 동북산의 생육이 순조로워 출하량, 가격 모두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
당근 치바(81%) 사이타마(8%)	5월부터 고가격 추이	평년 수준 으로 회복	- 6월부터의 주산지는 관동지역임 - 6월 전반은 4월 하순 이후 가뭄으로 인한 품질 저하로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아 가격은 지난달에 이어 평년보다 높음 - 6월 후반은 날씨가 괜찮으면 출하량, 가격 모두 평년 수준으로 회복 될 전망

배추 나가노(62%) 이바라키(22%)	5월부터 고가격 추이	고가격 추이	- 6월은 산지가 평지인 이바라키에서 고랭지의 나가노로 전환하는 시기 - 6월 전반은 평지가 산지인 배추는, 작년 겨울 배추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4월부터 6월에 출하하는 봄배추의 재배를 억제한 영향으로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아 가격은 지난달에 이어서 평년보다 높음 - 6월 후반은 생육이 좋은 고랭지의 출하가 시작되나, 평지 배추의 출하가 빨리 끝날 것으로 보여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고 가격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
양배추 치바(43%) 이바라키(25%)	5월부터 고가격 추이	고가격 추이	- 6월 전반은 관동지역의 출하가 끝나고, 4월 하순 이후의 가뭄에 인한 품질저하에 따라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아 가격은 지난달에 계속해서 평년보다 비쌌 - 6월 생육이 좋은 관동 고랭지에서의 출하가 시작하나 본격적인 출하는 7월 이후이므로 출하량이 평년수준으로 회복하지 않아 평년보다 비쌀 전망
시금치 군마(31%) 이바라키(20%)	5월부터 고가격 추이	평년 수준 으로 회복	- 6월 전반은 4월 하순 이후의 가뭄에 인한 품질저하로 인해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아 가격은 지난달에 계속해서 평년보다 비쌌 - 6월 후반은 날씨가 좋게 추이하면 출하량 가격 모두 평년 수준으로 회복 할 전망
대파 이바라키(56) 치바(20%)	5월부터 고가격 추이	고가격 추이	- 6월 전반, 후반 모두 관동 평지의 산지에서 출하가 되나 4월 하순 이후의 가뭄에 인한 품질저하에 따라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아 6월 내내 가격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
양상추 나가노(74%) 군마(19%)	5월부터 고가격 추이	평년 수준 으로 회복	- 6월은 고랭지인 나가노 및 군마에서의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하나, 생육이 지연되고 있어 전반은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아 가격은 지난달에 이어 평년보다 높음 - 6월 후반은 날씨가 좋게 추이하면 출하량 가격 모두 평년 수준으로 회복 할 전망
오이 사이타마(21%) 군마(15%) 후쿠시마(14%)	평년 수준 으로 회복	평년 수준	- 6월 전반은 관동의 산지에서 출하되며, 4월 하순 이후의 가뭄에 대해 하우스 재배는 관수에 대응하고 있어 출하량 가격 모두 평년 수준으로 전망 - 6월 후반은 후쿠시마산의 출하가 시작하고 생육도 좋아 출하량 가격 모두 평년 수준 전망

가지 고치(32%) 후쿠오카(20%) 군마(11%) 도치기(9%)	5월부터 고가격 추이	평년 수준 으로 회복	- 6월 전반은 서일본 산지에서 4월초중순의 기록적인 일조부족에 의한 수세저하에 따라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아 가격은 지난달에 이어 평년보다 높음 - 6월 후반은 관동산지에서의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하며, 관동산 노지재배의 일부에 가뭄으로 인한 생육지연이 보이거나 회복 경향에 있고 6월의 날씨가 괜찮으면 출하량 가격 모두 평년수준을 회복할 전망
토마토 도치기(22%) 이바라키(14%) 구마모토(10%)	5월부터 고가격 추이	평년 수준 으로 회복	- 6월 전반은 서일본 산지에서 4월초중순의 기록적인 일조부족에 의한 수세저하에 따라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아 가격은 지난달에 이어 평년보다 높음 - 6월 후반은 날씨가 좋게 추이하면 출하량 가격 모두 평년 수준으로 추이할 전망
피망 이바라키(72%) 고치(6%)	5월부터 고가격 추이	평년 수준 으로 회복	- 6월 전반은 이바라키 산지에서 4월초중순의 기록적인 일조부족, 노지재배는 4월 하순 이후의 가뭄에 인한 생육지연에 따라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아 가격은 지난달에 이어 평년보다 높음 - 6월 후반은 날씨가 괜찮으면 출하량 가격 모두 평년 수준으로 추이할 전망
감자 나가사키(56%) 시즈오카(15%)	5월부터 고가격 추이	고가격 추이	- 주요산지에서 4월초중순의 기록적인 일조부족에 따른 품질저하로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아 6월 가격은 지난달에 이어 평년보다 높음
토란 가고시마(57%) 마야자키(23%)	5월부터 고가격 추이	고가격 추이	- 주요산지에서는, 강우 등으로 인해 일부 농장에서 역병이 발생하여 수확량의 감소와 4월 하순 이후의 가뭄으로 인한 품질저하로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아 6월 가격은 지난달에 이어서 평년보다 높음
양파 사가(46%) 효고(17%)	5월부터 고가격 추이	고가격 추이	- 주요산지에 있어는 4월초중순의 기록적인 일조부족에 따른 품질저하로 출하량이 평년을 밑돌아 6월 가격은 지난달에 이어 평년보다 높음

(출처:농림수산성)